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숙*, 조인주**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둘러싼 환경체계 요인들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특성이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경로를 통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5개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 중 편의표집(이용가능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1,500부이고, 회부된 설문지 중 응답이 충실한 1,329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경로 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가족 자살자 수, 친구 자살자 수, 상담기관방문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아동학대경험, 학업성적, 친구지지는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담필요, 의사소통, 전문가지지, 외모태도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 및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살보도에 대한 대중매체태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자살생각, 자아정체감, 우울

* 주저자: 이정숙(E-mail: lee-104@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직: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시간강사

** 교신저자: 조인주(E-mail: injucho@wku.ac.kr)
학위취득대학: UCLA 사회복지학 박사
현직: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부교수

†이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논문접수일: 2018년 1월 19일, 논문수정일: 2018년 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25일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and Depression

Lee, Jeong-sook, Cho, In-ju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by examining how it was affected by individual, family, schoo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nd mediating factors(e.g. self-identity and depression). Data were gathered from college students of five universities in Jeonbuk area. Using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 total of 1,5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329 of them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o committed suicide and experience of visiting counseling center had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experience of abuse during childhood, grade, and friend support had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self-identity and depression. In addition, counseling needs,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xpert support, and attitudes regarding one's appearance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via self-identity and depression. However, attitudes regarding mass media suicide report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to prevent and reduce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Self-identity, Depression*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자살소식을 접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닐 만큼 한국 사회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가 2000년에는 13.6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 26.5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 이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OECD 국가의 자살자수가 인구 10만 명당 평균 12명인 비교할 때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OECD, 2017).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2003년 이후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별 자살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의 대학생 자살자 수가 6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부, 2016).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우울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진로문제, 가정문제, 처지비판, 이성문제, 교우관계, 질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살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정신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3-24세 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1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성인의 9.0% 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성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김예지·장혜정, 2016).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시도를 할 위험성이 6배나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Kuo, Gallo, and Tien, 2001)를 고려할 때,

자살생각은 자살의 중요한 예언적 지표로 예방적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Arnett(2000)은 만 18세~25세 사이에 해당하는 집단을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보다는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생애주기의 발달단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개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Arnett, 2004; 현안나·윤숙자, 2012).

이 시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들은 대학생들에게 갈등과 위기를 안겨준다. 특히, 대학입학 이전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입시위주 환경으로 인해 발달과업이 지연된 채 대학생화를 맞이하게 된 대학생들은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사회적 기대감, 가족과 친구 및 주변 사람들과의 분리, 정체감 형성의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을 과중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이혜선·김성연·박일·강여정·이지영·권정혜, 2012).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은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정신건강의 문제는 고립, 중독, 폭력, 일탈행동 등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자살이 일단 완료되면 자살자는 이미 생존해 있지 않아 자살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관련연구는 자살에 선행되는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

어지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관련 연구는 메타분석이 이루어질 정도로 다수가 진행된 반면, 대학생 대상 자살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대학생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으로 밝혀졌다(장창민·최지영, 2011).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부(2016)에서는 대학생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우울증, 학업 및 진로문제, 가정문제, 처지비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은 개인의 정서와 관계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살 문제는 사회 및 가족적 요인 뿐 아니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자살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적, 환경적 변화와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 구조 및 가정 해체 등 가정의 변화가 가장 크게 기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정서와 관계에 역기능적 작용을 하여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살 예방 및 개입 방안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 환경적 요인, 가족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 필요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 환경적 차원으로 개별적 접근 또는 개인과 가족적 차원,

개인과 사회 환경적 차원, 가족과 사회 환경적 차원 등으로 검증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였다.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김종운·지연옥, 2017), 우울, 대인관계스트레스, 속박감, 패배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김혜지·배성우, 2017), 자아존중감과 좌절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김성현·김미경·백현옥, 2017), 우울, 자존감,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박영희, 2017),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박필남, 2016; 정민, 2016; 김정호·홍혜영, 2016) 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련이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에는 자아존중감, 좌절감, 우울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가족적 차원이다. 가족적 차원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갈다나와 박재연(2017)은 가족적 측면의 위험요인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방임, 어머니-자녀 갈등으로, 보호요인은 가족 간 유대, 가족탄력성으로 선정하여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자녀갈등, 가족탄력성,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의 관계(이기범·주혜원·현명호, 2015),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가족의사소통과 대학환경의 영향 검증(손인봉·최정아, 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조호운·주은정·김정일, 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가족적 요인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는 사회 환경적 차원이다. 사회 환경적 차원은 대학환경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

할 수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인봉과 최정아(2016)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대학환경이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대학환경은 대학생의 학교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하였는데, 대학환경은 자살사고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박영희, 2017; 김종운·지연옥, 2016),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자살생각(조은경·이영순, 2016), 자살 관련 보도에 따른 자살생각(양현주·변은경, 2016)을 검증하였다. 한편, 조계화와 이현지(2013)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살의 원인으로 성취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 가치체계의 붕괴, 인터넷과 언론매체의 부작용, 가족구조의 변화, 정신건강으로 분류하여 대학생들은 개인의 정신건강 차원부터 가족, 사회, 문화적 차원까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론적 이론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Heise(1998)는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Bronfenbrenner(1977)에 의해 개발된 생태체계이론을 사용하여 개인적, 상황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검증하였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자살생각 또한 어느 하나의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족, 학교, 사회문화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생태체계론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개인체계(개인발생체계), 가족체계(미시체계), 학교체계(외적체계), 사회문화체계(거시체계)로 분류하여 경로모형을 개발 검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체계 요인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과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함께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 및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자살생각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도모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먼저, 자살생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와 자살수행과 같은 연속적 과정개념으로 설명한다(김정진, 2009). 즉, 자살이란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자살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지표로 고려되어진다. 따라서 자살예측은 자살생각에 대한 심각성에 앞서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에 대한 유무가 강조되고 있다(정영주·정영숙, 2007).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이르게 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자살생각을 자살사고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선행연구들이 다수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을 자살사고와 혼용하였다.

Bronfenbrenner(1977)는 인간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발달, 개인이 생활하는 직접적인 환경, 그리고 거시적 차원인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간의 다차원적인 환경을 개체발생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 거시체계로 개념화하여 인간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 주제인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체계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Bronfenbrenner(1977)의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Heise(1998)는 개체발생체계는 개인의 특성 및 성격, 발달사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개인의 성별, 나이, 경제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특성이 관련이 있다. 미시체계는 유기체가 몸담고 있는 인접환경을,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외적체계는 유기체가 직접 포함되지 않는 사회구조들로 유기체의 중간체계나 미시체계에 직접적 영향력은 있으나 유기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체계는 특정 문화권의 일반적 신념, 가치관, 이데올로기로 정의되며 이들은 간접적 영향력이 있으나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 관련 연구들은 생태체계를 개인, 가족, 학교체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이외에 황보수연(2012)과 김동숙(2010)은 사회환경체계를, 박병금(2006)은 친구체계와 대중매체체계를, 서혜석(2006)은 지역사회체계를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이처럼 생태체계 요인은 연구자에 의해 다르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체계와 가족체계 외에 외적체계는 연구 대상자들이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학교체계로, 거시체계는 사회문화적 체계로 개념화하였다.

다음은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구를 각 체계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Anderson(2002)은 후기 청소년기 및 청년들의 자살표현방법에 있어 남성은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성별은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신영훈·박선영, 2016; 강석화, 2012).

Wang 등(2007)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배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Baumeister(1990)는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Hirsch와 Ellis(1996)는 자살의 대표적 위험요인을 스트레스로 보고하였고, 부정적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업,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성공에 대한 압박, 경제문제 등과 같은 상황적 생활스트레스와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김종운·지연옥, 2017; 김혜지·배성우, 2017; 김성현·김미경·백현옥, 2017; 박영희, 2017; 강석화, 2012).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대신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rickson(1956)은 청년기를 자아정체감 확립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를 정체감 위기의 시기라고 하였다. 외현적인 정체감 위기가 청년기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아정체감 형성은 대학생의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이지만 자아정체감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체계 요인에 대학생들이 느끼는 상담의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심영숙(2000)은 그의 연구에서 자살시도를 한 학생들의 67-95%가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96%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문 상담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정신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상담 필요성 인식 정도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개인체계 요인에 성별, 스트레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자아정체감, 우울을 포함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자살 원인 1순위는 우울로 조사 되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 우울과 같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16; 장창민·최지영, 2011). 이는 우울을 독립 변수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인, 가족, 사회, 문화적 요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검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에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우울을 매개 변수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개인, 가족, 학교, 사회문화적 체계가 우울을 매개로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수현과 이강이(2015)는 성적부진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매개 변수로 선정하여 검증하였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변수 대신 자아정체감의 변수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 변수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은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에 가족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특성 및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김민경, 2011). 특히, 가족은 청소년기의 대학생에게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하나·김혜련·최윤신, 2011).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직접 학대경험을 한 청소년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의 위험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정윤경·이진석, 2009; Berenson, Wiemann and McCombs, 2001). 김민경(2011)과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모학대 경험이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여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은 청소년 시기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에 주고받는 매개체이며,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 유용한 기제이다(Olson, Sprenkle and Russell, 1979).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불만족을 갖게 한다. Pfeffer, Conte, 그리고 Plutchik(1993)는 자살을 하는

청소년 가정은 부모와의 폐쇄적인 관계로 인해 정서적 분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근영·최수찬·공정석, 2011; Handwerk, Larzelere, Friman, and Mitchell, 1998).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그 자살로 인해 최소 6명부터 많게는 28명의 가족, 친구,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Knieper, 1999). 이지영(2007)은 방어기제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가족, 친척, 친구들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됨을 지적하였다. 자살로 인한 사별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별의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슬픔을 느끼며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Mitchell, Kim, Prigerson, and Mortimer-Stephens, 2004).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연구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으나(모지환·배진희, 2011; 이민아·김석호·박재현·심은정, 2010; Bridge, Brent, Johnson, and Connolly, 1996), 자살의 가족력이 청소년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박병금, 2006)도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학교 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성적, 친구지지, 친구 및 선후배 자살시도자 수 등이 있다. 청소년기의 특성 중 하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학교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심적인 사회 환경이다. Joiner 등(2005)은 인간은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통합되지 못하여 소외되거나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고

지각할 때 심리적 결핍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죽음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교체계 요인을 포함하여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실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성적은 주요 스트레스원이 되고 있다. Rubin 등(1992)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은 우울을 가져오고, 성적 저하는 자살의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떨어졌을 때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결국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박경애·구본용·김원중·송중용·이재규·조은경, 1993). 그러나 대학생의 학업성적은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강석화, 2012)가 보고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 상 친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친구와의 관계는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andel, Johnson, and Bird, 1999).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와의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 자살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나,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자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홍나미, 2012; King and Merchant, 2008). 그러나 박우영(2008)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체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창민과 최지영(2011)은 지난 12년간 대학생 자살원인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 및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특성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정완(2010)은 한국 사회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살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사이트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설 취지와는 달리, 자살사이트는 자살에 관한 다양한 정보 소개, '같이 갑시다'와 같은 검색어를 통해 동반 자살 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오용, 악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은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고 정당한 인간의 권리이며 죄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오히려 자살을 조장하고 있어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자살사이트 방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박동균·신성원, 2007).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2010)은 중고생 4,076명과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4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그룹 모두 자살 사이트를 많이 방문할수록 자살시도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은 그들의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을 연구 변수로 선정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이 상담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데, 이는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심리적 고통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 이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한다(노명선·전홍진·이해우·이효정·한성구·함봉진, 2007).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시도할 당시 67-95%가 정신과 질환을 보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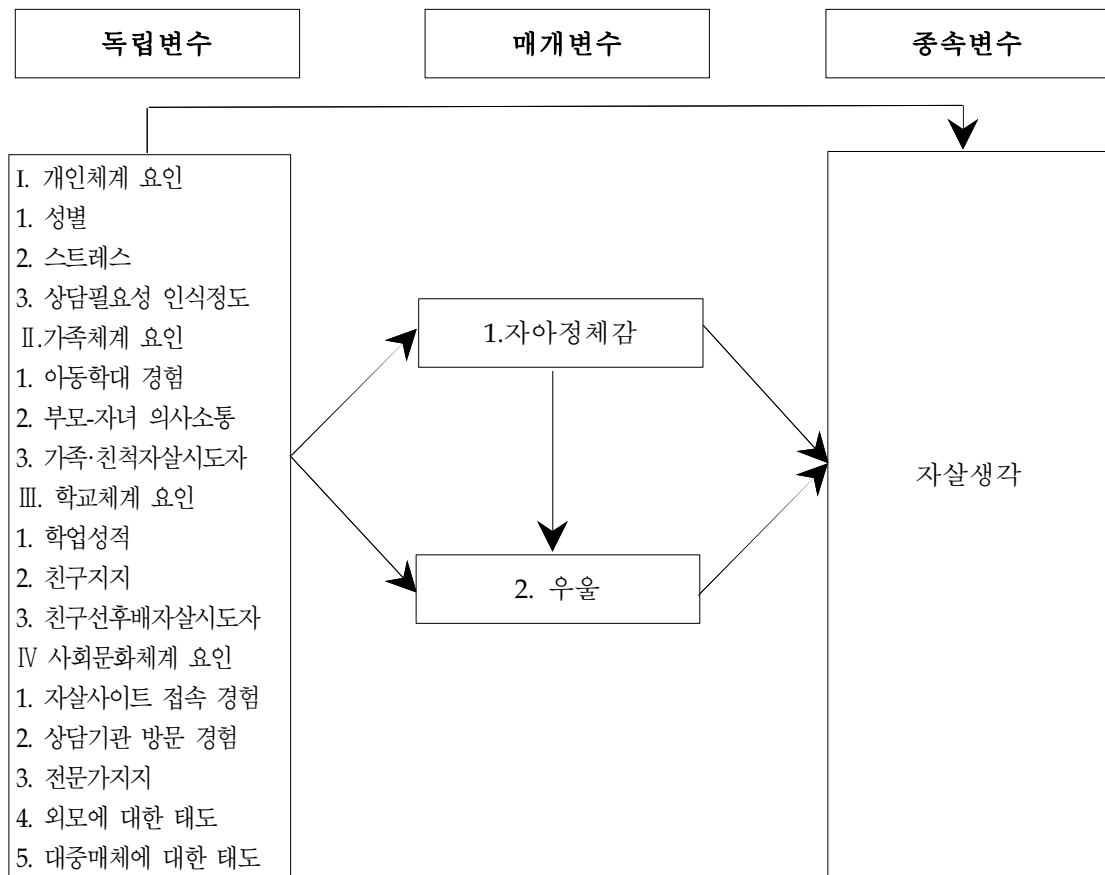
그 중 96%는 정신건강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Marttunen, Aron, and Lonnqvist, 1993)를 볼 때, 전문 상담기관 방문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내의 정기적인 상담프로그램과 적절한 치유서비스가 자살시도 고위험군인 자살경험자의 자살시도를 30% 감소시켰다고 보도한 한 언론의 기사(중앙일보, 2013.1.16.)는 상담서비스 경험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이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자살생각 예방 및 개입에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를 가꾸는 행동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특징지어질 만큼 주요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외모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생각과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문화적 표준이 존재하여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정용민, 2011). 20세기를 대표하는 용어들 중 하나인 루키즘(lookism)(New York Times, 2000.8.27.)은 외모지상주의를 뜻하는데 외모가 개인 간 우열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한다고 믿거나 이에 집착하는 경향과 사회풍조를 표현하고 있다. 차승민 등(2011)은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불만족이 심할수록 우울증상이 심하고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와도 관련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는 인터넷, TV,

영화, 신문, 잡지, 스마트 폰 등의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David Phillips(1974)는 유명인의 자살 이후 발생하는 모방자살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1948-1968년까지 뉴욕 타임즈에 실린 자살 기사를 분석하여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유명인의

자살사건 보도와 그 보도량은 자살률을 증가시켰음이 밝혀졌다. Stack(2000)은 유명인의 자살은 일반인의 자살에 비해 모방효과가 14.3배가 더 많았으며, 사실적 자살기사가 허구적 기사보다 4.03배의 모방자살 효과를 더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자살을 다루는 언론매체의 수, 반복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된 보도,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 등이 모방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박동균·신성원, 2007).



[그림 1] 연구 모형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인해 개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매스

미디어의 기사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을 예방

및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자살생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 4년제 대학 5개 대학 재학생을 편의 표집(이용가능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 계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자료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허락한 교수와 약속한 일시에 방문하여 그 곳에 모인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둘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수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담당 교수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수거하였고, 연구자는 약속된 날에 담당 교수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총 1,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34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11부를 제외하고 총 1,329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자살생각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Kovacs 그리고 Weissman(1979)의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박광배와 신민섭(1991)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검사 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eck et al., 1979). SSI는 임상면접을 통하여 임상상담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0~2)의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차미영(2010)은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원래의 문항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점수의 분포는 0~38이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897로 나타났다.

2) 매개 변수: 자아정체감, 우울

(1) 자아정체감

연구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2003)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37로 나타났다.

(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Cho(2007)가 한국어로 번역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주 동안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고 행동한 정도를 4점 척도(0='전혀없다'(1일 이하), 1='가끔'(1~2일), 2='자주'(3~4일), 3='거의 항상'(5~7일))로 측정하였다. CES-D는 최소 0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4, 8, 12, 16번 문항은 역점수로 계산된다.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18로 나타났다.

3) 독립변수: 개인체계 요인

(1) 성별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로 측정하였고, 기준범주를 여자로 하는 더미 변수 처리 후에 분석하였다.

(2) 스트레스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ohen 등(1983)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엄태완(2004)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개월 간 스트레스가 심했던 일이나 그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인 '전혀 없었다(0점)'에서 '상당히 자주 있었다(4점)'로 측정하였다. PSS는 최소 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4, 5, 7, 8번 문항은 역점수로 계산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777로 나타났다.

(3) 상담필요성 인식

상담필요성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귀하는 현재 개인문제로 인한 상담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 필요성의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독립변수: 가족체계 요인

(1) 아동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아동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8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의 2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으로는 '언어적으로 욕이나 비난한 적이 있다',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주변의 도구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인 '전혀 없었다(0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4점)'로 측정되었다. 아동학대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875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연구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Barnes(1982)가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자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의사소통 방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22로 나타났다.

(3) 가족 및 친척 자살 시도자

가족 및 친척 자살 시도자의 수를 측정하

기 위해 “귀하의 가족이나 친척 중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5) 독립변수: 학교체계 요인

(1) 학업 성적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적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자신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1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으로 측정하였다.

(2) 친구지지

친구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1996)이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문항 중 친구지지에 관련된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친구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56으로 나타났다.

(3)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친구나 선후배가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6) 독립변수: 사회문화체계 요인

(1)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연구 대상자의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지금까지 자살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습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2)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지금까지 전문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3) 전문가 지지

전문가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herbourne와 Stewart(1991)가 개발한 것을 Lee(2006)가 번역한 사회적 지원의 가용성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없음(0점), 거의 항상(4점)'로 측정되었다. 전문가 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70으로 나타났다.

(4)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윤경(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외모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848로 나타났다.

(5)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창학(2011)의 자기보고식 질문형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중매체는 인터넷, TV, 스마트폰, 영화, 소셜, 만화, 노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91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자아정체감, 우울,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학교체계 요인, 사회문화체계 요인 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 RMSEA, NFI, CFI를 활용하였고,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체계 요인으로 성별은 남자가 53.9%(708명)로 여자 46.1%(606명)보다 약간 많게 참여하였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는 58.1%(763명)가 상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0.9%(274명), 없다 11.0%(145명), 많다 8.1%(107명), 매우 많다 1.9%(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 평균 점수(1.96)는 중간 점수(2.0)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보통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체계 요인 중 아동학대 경험 평균 점수(0.28)는 중간 점수(1.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언어폭력은 아버지(0.53)와 어머니(0.44)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아 아동학대의 약 반절 이상의 경험은 언어폭력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의 평균 점수(2.15)는 중간 점수(3.0)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친척 자살 시도자 수에서는 135명(10.4%)이 적어도 1명 이상의 가족 및 친척이 자살(또는 자살시도)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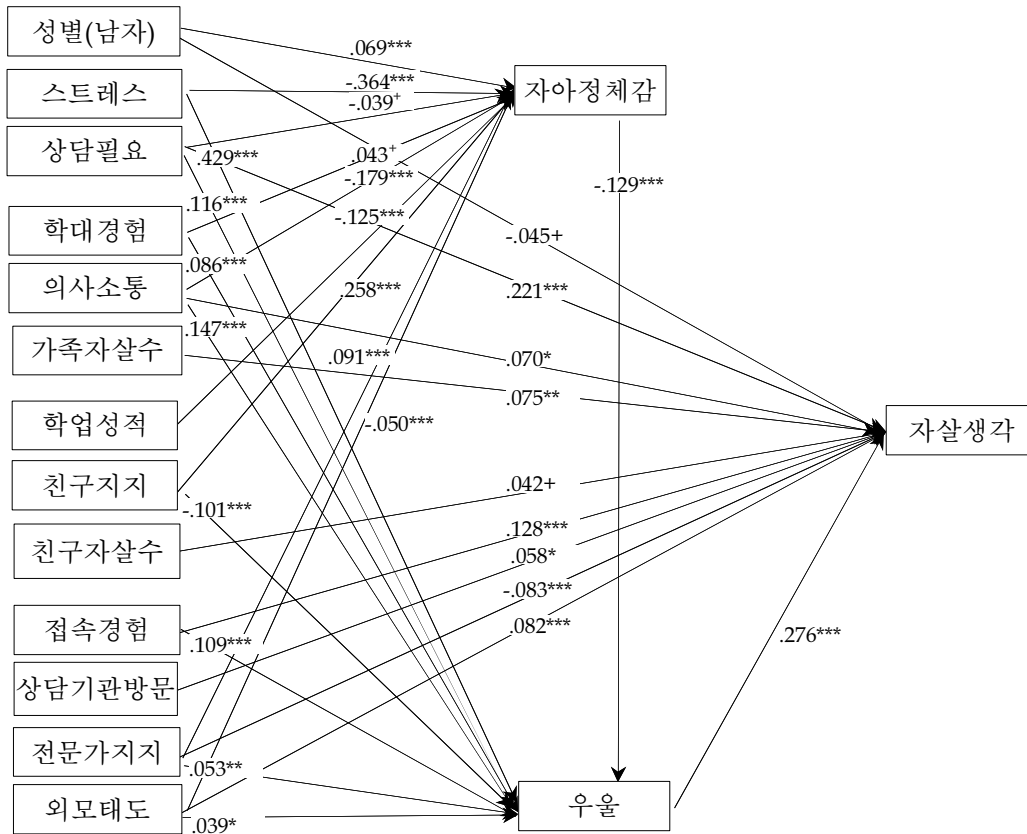
셋째, 학교체계 요인으로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835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지지 평균(3.84)은 중간 점수(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수에서는 236명(18%)이 적어도 1명 이상의 친구나 선후배가 자살(또는 자살시도)의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사회문화체계 요인으로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은 응답자 중 32명(3.2%)이 적어도 1번 이상 자살사이트 접속경험이 있었으며,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은 1,220명(92.8%)이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지지의 평균 점수(1.01)는 중간 점수(3.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가지지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태도 평균(3.55)은 중간 점수(3.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외모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 평균(3.17)은 중간치(3.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대중매체의 자살에 대한 보도는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평균 이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매개변수 중 자아정체감(3.53)은

중간 점수(3.0)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우울(0.97)은 중간(1.5)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종속변수인 자살생각(0.26)은 중간 점수(1.00)보다 매우 낮은 평균 점수로 분석되었다.



주 : +p < 0.1, *p < 0.05, **p < 0.01, ***p < 0.001

X²=172.904(df = 37, RMSEA = 0.053, NFI = 0.966, CFI = 0.972)

[그림 2] 자살생각 영향요인 경로모형 분석 결과

3. 경로모형 분석

경로모형 분석에 앞서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모

두 .7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다음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생각 영향요인 경로분석 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은 실선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표기하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9

지 않았다.

경로분석 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경로분석 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χ^2 값($\chi^2=172.904$, $df=37$)에 대한 p값이 .000으로 기준치($p \geq .05$) 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크면, χ^2 값이 커져 p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p가 .005보다 작더라도 표본수가 클 때는 다른 적합도 지수 검토를 통해 적판정할 수 있다. 근사원소편차자승잔차(RMSEA)는 .053으로 기준치($p \leq .08$)를 충족하였고, 표준부합치(NFI)는 .966으로 기준치($p \geq .90$)를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부합치(CFI)가 .972로 나타나 기준치($p \geq .90$)를 충족해 경로분석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표 1> 경로분석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X ²	RMSEA	NFI	CFI
기준	$p \geq 0.05$	$p \leq 0.1$	≥ 0.9	≥ 0.9
연구 모형	X ² =172.90 4 p=0.000	0.053	0.966	0.972

주: RMSEA가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close fit)하며, 0.1보다 작으면 상당히 적합(resonable fit)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들을 통해 직접경로들의 유의성을 검증한 것이다. 먼저,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에는 성별(.069), 아동학대 경험(.043), 친구지지(.258), 전문가지지(.091)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스트레스(-.364),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039),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179), 학업성적(-.125), 외모에 대한 태도(-.050)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429),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116), 아동학대경험(.086),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147),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109), 전문가지지(.053), 외모에 대한 태도(.039)로 나타났으며, 우울에 부적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는 친구지지(-.101)와 자아정체감(-.12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221),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070), 가족·친척 자살 시도자 (.075),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수(.042),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128),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058), 외모에 대한 태도(.082), 우울(.276)로 검증되었고, 부적적인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는 성별(-.045)과 전문가 지지(-.083)로 검증되었다.

<표 2> 경로분석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C.R.	β	P
자아정체감 ← 성별	2.305	.700	3.293	.069	.000
자아정체감 ← 스트레스	-12.226	.822	-14.869	-.364	.000
자아정체감 ← 상담필요	-.578	.327	-1.766	-.039	.077
자아정체감 ← 학대경험	1.725	.923	1.869	.043	.062
자아정체감 ← 의사소통	-4.444	.612	-7.267	-.179	.000
자아정체감 ← 가족자살수	-1.193	.862	-2.24	-.005	.823
자아정체감 ← 학업성적	-3.527	.574	-6.147	-.125	.000

경로	B	S.E.	C.R.	β	P
자아정체감 ← 친구지지	5.773	.505	11.427	.258	.000
자아정체감 ← 친구자살수	-.005	.555	-.009	.000	.993
자아정체감 ← 접촉경험	-1.698	1.322	-1.285	-.029	.199
자아정체감 ← 상담기관 방문	.618	.883	.700	.015	.484
자아정체감 ← 전문가 지지	1.964	.441	4.450	.091	.000
자아정체감 ← 외모태도	-1.043	.430	-2.424	-.050	.015
자아정체감 ← 매체태도	.038	.336	.113	.002	.910
우울 ← 성별	-.519	.377	-1.376	-.027	.169
우울 ← 스트레스	8.453	.477	17.735	.429	.000
우울 ← 상담필요	1.008	.176	5.734	.116	.000
우울 ← 학대경험	2.021	.496	4.073	.086	.000
우울 ← 의사소통	2.142	.335	6.400	.147	.000
우울 ← 가족자살수	-.264	.463	-.570	-.011	.569
우울 ← 학업성적	.350	.312	1.122	.021	.262
우울 ← 친구지지	-1.324	.284	-4.660	-.101	.000
우울 ← 친구자살수	-.137	.298	-.460	-.009	.646
우울 ← 접촉경험	3.795	.710	5.346	.109	.000
우울 ← 상담기관 방문	-.454	.474	-.958	-.019	.338
우울 ← 전문가 지지	.668	.239	2.797	.053	.005
우울 ← 외모태도	.480	.231	2.073	.039	.038
우울 ← 매체태도	-.173	.180	-.957	-.018	.338
우울 ← 자아정체감	-0.076	.015	-5.129	-1.29	.000
자살생각 ← 성별	-0.027	.014	-1.912	-0.045	.056
자살생각 ← 스트레스	.003	.020	.127	.004	.899
자살생각 ← 상담필요	.059	.007	8.904	.221	.000
자살생각 ← 학대경험	.021	.019	1.109	.029	.268
자살생각 ← 의사소통	.031	.013	2.465	.070	.014
자살생각 ← 가족자살수	.053	.017	3.049	.075	.002
자살생각 ← 학업성적	-.004	.012	-.335	-.008	.738
자살생각 ← 친구지지	-.007	.011	-.612	-.016	.540
자살생각 ← 친구자살수	.020	.011	1.796	.042	.073
자살생각 ← 접촉경험	.136	.027	5.074	.128	.000
자살생각 ← 상담기관 방문	.042	.018	2.380	.058	.017
자살생각 ← 전문가 지지	-0.032	.009	-3.609	-0.083	.000
자살생각 ← 외모태도	.031	.009	3.539	.082	.000
자살생각 ← 매체태도	-.009	.007	-1.294	-.030	.196
자살생각 ← 자아정체감	.000	.001	-.533	-.016	.594
자살생각 ← 우울	.008	.001	8.247	.276	.000

주: S.E.는 Standard error(표준오차)의 약자이며, C.R.는 Critical ratio의 약자이다.

<표 3>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크기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총효과=.276), 상담

필요성 인식 정도(총효과=.255),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총효과=.160), 스트레스(총효과=.141),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총효과=.120)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61

<표 3> 연구 변수 직접, 간접, 총 효과 분해

변수	효과	자아정체감	우울	자살생각
성별(남자)	직접효과	.069***	-.027	-.045+
	간접효과	-	-.009**	-.011+
	총효과	.069***	-.036+	-.056+
스트레스	직접효과	-.364***	.429***	.004
	간접효과	-	.047**	.137**
	총효과	-.364***	.476**	.141**
상담필요	직접효과	-.039+	.116***	.221***
	간접효과	-	.005+	.034**
	총효과	-.039+	.121**	.255**
학대경험	직접효과	.043+	.086***	.029
	간접효과	-	-.006+	.021**
	총효과	.043+	.080**	.050+
의사소통	직접효과	-.179***	.147***	.070*
	간접효과	-	.023**	.050**
	총효과	-.179***	.170**	.120**
가족자살수	직접효과	-.005	-.011	.075**
	간접효과	-	.001	-.003
	총효과	-.005	-.011	.072+
학업성적	직접효과	-.125**	.021	-.008
	간접효과	-	.016**	.012+
	총효과	-.125**	.037+	.005
친구지지	직접효과	.258***	-.101***	-.016
	간접효과	-	-.033**	-.041**
	총효과	.258***	-.134**	-.057*
친구자살수	직접효과	.000	-.009	.042+
	간접효과	-	.000	-.002
	총효과	.000	-.009	.040
접속경험	직접효과	-.029	.109***	.128***
	간접효과	-	.004	.032**
	총효과	-.029	.113**	.160**
상담기관 방문	직접효과	.015	-.019	.058*
	간접효과	-	-.002	-.006
	총효과	.015	-.021	.052
전문가 지지	직접효과	.091***	.053**	-.083***
	간접효과	-	-.012**	.010
	총효과	.091***	.041*	-.073**
외모태도	직접효과	-.050***	.039*	.082***
	간접효과	-	.006*	.013*
	총효과	-.050***	.046*	.095**
매체태도	직접효과	.002	-.018	-.030
	간접효과	-	.000	-.005
	총효과	.002	-.018	-.035
자아정체감	직접효과	-	-.129***	-.016
	간접효과	-	.000	-.036**
	총효과	-	-.129**	-.052

변수	효과	자아정체감	우울	자살생각
우울	직접효과	-	-	.276***
	간접효과	-	-	
	총효과	-	-	.276**

+p < 0.1, *p < 0.05, **p < 0.01, ***p < 0.001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매개효과(Z값)	p
성별(남자)→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2.609	p < .01
스트레스→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4.113	p < .001
스트레스→우울→자살생각	7.291	p < .001
상담필요→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1.634	p = .103
상담필요→우울→자살생각	4.657	p < .001
학대경험→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1.713	p < .1
학대경험→우울→자살생각	3.631	p < .001
의사소통→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3.687	p < .001
의사소통→우울→자살생각	4.995	p < .001
학업성적→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3.512	p < .001
친구지지→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4.009	p < .001
친구지지→우울→자아정체감	-4.028	p < .001
접속경험→우울→자살생각	4.444	p < .001
전문가지지→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3.086	p < .01
전문가지지→우울→자살생각	2.639	p < .01
외모태도→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2.110	p < .05
외모태도→우울→자살생각	2.012	p < .05

<표 4>는 발견된 개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에서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에서 우울, 우

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Z=1.634, p=.103)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1). 이는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검증된 결과와는 달리 이 경로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 Z = \frac{ab}{\sqrt{b^2Sa^2 + a^2Sb^2}}$$

$$Z = \frac{abc}{\sqrt{a^2b^2Sc^2 + a^2c^2Sb^2 + b^2c^2Sa^2}}$$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63

V.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을 둘러싼 생태체계요인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상담 및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가족·친척 자살 시도자 수,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수,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주변인의 자살경험은 자살생각을 높이고, 상담기관 방문 정도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스트레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아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친구지지,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가 검증되었다. 그 중,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아동학대경험,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여자), 스트레스, 아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학업성적, 친구지지,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로 검증되었다. 그 중, 성별, 의사소통,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력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아동학대경험, 학업성적,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을 강화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다양한 환경체계요인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자살생각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가정하고, 각 체계변인들이 자살생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변인들과 자살생각과의 직접적 영향력에 대한 결과들이 대부분이고,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여 경로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여자),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가족·친척 자살 시도자 수,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수,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아정체감이나 우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를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및 지역사회가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및 정신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상담센터, 전문병원, 경찰서 등과 같은 유관 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 연계 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나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먼저, 대학생 개인이 자신의 우울 정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벼운 우울은 우울증 관리 기술 훈련을 통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스트레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아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친구지지,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자아정체감 등을 고려할 때,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개인의 생태체계적 사정에 따른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자아정체감은 성별, 스트레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아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학업성적, 친구지지,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받아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된 자아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통합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검사도구

를 활용하여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및 능력 등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대학 내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은 대학 내 자살방지를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여 2004년 이후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노명선 등, 2007). 대학 내 자살예방 서비스에서는 자살위기 대상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접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생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별 관리하며,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 내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확보 등 인적, 물적 자원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상담의 필요성, 상담기관방문 경험, 전문가지지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인식의 개선, 각 지역의 위기상담을 위한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학 또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기관 또는 상담센터의 프로그램이나 기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보다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가 조성되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학교 상담서비스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친구 및 교수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정신건강센터, 전문병원, 보건소,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미연에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상자

를 신속하게 도출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제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5개 대학 1,32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추출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선행연구가 부족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자아정체감 등과 같은 변인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누적된 결과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자살자 주변인들의 심리 부검을 통해 대학생들의 자살 영향요인을 추정하여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전국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기의 과도기에 있어 연구 및 조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의 자살자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정신건강실태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 전국 대학생의 정신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 체계의 독립 변인들이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로분석으로 포괄적으로 검증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참고문헌

- 강석화. 2012.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윤경. 2004.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외모지상주의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6.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
- 김동숙.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연구: 공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경. 2011.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우울과 테질리언스 및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09-127.
- 김성현·김미경·백현옥. 2017. “자아존중감과 좌절감이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46: 1-18.
- 김예지·장혜정.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3(2): 27-37.
- 김재엽·정윤경·이진석. 2009. “가정 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 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6.
- 김중운·지연옥. 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3): 523-545.
- 김창학. 2011.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사고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나·김혜련·최윤신. 2011.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117-129.
- 김혜지·배성우. 2017. “대학생의 자살생각 경로 분석: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1-23.
- 노명선·전홍진·이해우·이효정·한성구·함봉진. 2007. “대학생들의 자살관련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6(1): 35-40.
- 모지환·배진희. 2011. “자살행동 영향 요인: 성별, 연령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121-145.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구본용·김원중·송종용·이재규·조은경. 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광배·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동균·신성원. 2007. “우리나라 모방 및 우울증 자살의 사례분석과 사회적 대책.” 『한국경찰연구』 6(3): 92-124.
-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 학술대회 자료집』 4: 399-403.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영희. 2017. “대학 신입생의 자살위험요인

- 경협, 정신건강,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7(2): 621-632.
- 박우영. 2008.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장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필남. 2016.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1): 1-10.
- 서혜석.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인봉·최정아. 2016.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대한 가족의사소통과 대학환경의 영향 검증.” 『가족과 가족치료』 24(4): 553-571.
- 신영훈·박선영. 2016. “청소년의 대인관계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토.” 『청소년복지연구』 18(1): 235-259.
- 심영숙. 2000. “대학생의 문제의 심각도 지각과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가 상담 요청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주·변은경. 2016. “자살관련 보도에 따른 대학생의 자살태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0): 582-590.
-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근영·최수찬·공정석. 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83-107.
- 이기범·주해원·현명호. 2015.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21-36.
- 이민아·김석호·박재현·심은정. 2010.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2): 61-84.
- 이수현·이강이. 2015. “성적 부진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9): 183-211.
- 이지영. 2007.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선·김성연·박일·강여정·이지영·권정혜. 2012. “대학생의 자살관련생각과 행동의 원인 및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24(3): 703-728.
- 장창민·최지영. 2011. “한국 대학생 자살의 특성-보도기사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73-82.
- 정영주·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기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완. 2010.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 『경희법학』 45(3): 273-298.
- 정용민. 2011. “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사회적 체형 불안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959-971.
- 정익중·박재연·김은영. 2010. “학교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222-251.
- 제갈다나·박재연. 2017. “대학생 자살생각에

-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측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24(2): 413-444.
- 조계화·이현지. 2013.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22: 105-133.
- 조은경·이영순. 2016. “대학생의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8(3): 493-509.
- 조호운·주은정·김정일. 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자기인식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1): 77-86.
- 중앙일보 2013. 1. 16일자.
- 차미영. 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우울의 효과.”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승민·김태성·강문희·권명진·김정란·왕성근·지익성. 2011. “젊은 성인에서 신체 만족도에 따른 문제해결양식, 대인관계문제와 우울증상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 『생물 치료 정신의학』 17(2): 221-228.
- 통계청. 2016. “201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자살률.” 『보건복지통계』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안나·윤숙자. 2012.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9(2): 403-428.
- 홍나미. 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보수연. 2012. “생태체계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Non-Korean References

- Anderson, P. 2002.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during childhood." *Child Neuropsychology* 8(2): 71-82.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M. Kovacs and A. Weissman.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
- Berenson, A. B., C. M. Wiemann and S. McCombs. 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with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5(11): 1238-1242.
- Bridge, J. A., D. A. Brent, B. A. Johnson and J. Connolly. 1996. "Suicidal behavior runs in families: a controlled family study of adolescent suicide victi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12): 1145-1152.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Cho, I. J. 2007.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spousal abuse in Korean American male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ohen, J. 1983. "The cost of dichotomiz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7(3): 249-253.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st Assoc* 4: 56-122.
- Handwerk, M. L., R. E. Larzelere, P. C. Friman and A. M. Mitchell.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lethality of attempted suicide and prior suicidal communications in a sample of residential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1: 407-414.
- Heise, L. L. 1998. "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grated ecological framework." *Violence Against Women* 4(3): 262-290.
- Hirsch, J. K. and J. B. Ellis. 1996. "Differences in life stress and reasons for living among college suicide ideators and non-ideators." *College Student Journal*.
- Joiner, Jr. T. E., J. S. Brown, and L. R. Wingate. 2005. "The psychology and neurobiology of suicidal behavior." *Annu. Rev. Psychol* 56: 287-314.
- Kandel, D. B., J. G. Johnson and H. R. Bird. 1999. "Psychiatric comorbidity among

- adolescent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findings from the MECA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693-699.
- King, A. and R. Merchant. 2008. "Social and Interpersonal Factors Relating to Adolescent Suicidal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2: 181-196.
- Knieper, A. J. 1999. "The suicide survivor's grief and recover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4): 353-364.
- Kuo, W., J. J. Gallo and A. Y. Tien. 2001. "Incidence of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adults: The 13-year follow-up of a community sample in Baltimore, Maryland." *Psychological Medicine* 31: 1181-1191.
- Lee, H. Y. 2006. "Social and Cultural Construction of Elder Mistreatment: Definition, Perception,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arttunen, M. J., H. M. Aron and J. K. Lonnqvist. 1993. "Adolescence and suicide: A review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1): 10-18.
- Mitchell, A. M., Y. Kim, H. G. Prigerson and M. Mortimer-Stephens. 2004. "Complicated grief in survivors of suicide."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5: 12-18.
- New York Times, 2000. 8. 27.
- OECD. 2017. "OECD Health Data."
- Olson, D. H., Sprenkle, D. H., and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1): 3-28.
- Pfeffer, C. R., H. R. Conte and R. Plutchik. 1993. "Suicidal behavior in latency-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 679-692.
- Phil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0-354.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ubin, C., J. L. Rubenstein, G. Stechler, T. Heeren, A. Helton, D. Housman and L. Kasten. 1992. "Depressive affect in normal adolescen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family, and friend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 430-441.
- Stack, S.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45-162.

Sherbourne, C. and Stewart, A. 1991.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ial science & medicine* 32(6): 705-714.

Wang, M. C., O. R. Lighrsey, T. Pietruszka, A. C. Uruk and A. G. Wells. 2007.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95-204.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a Mi-yeong. 2010. "The Effect of Life Event,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n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PhD dissertation, Kangwon: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ha Seung-min, Kim Tae-sung, Gang Moon-hee, Kwon Myung-jin, Kim Jeong-lan, Wang Seong-keun, and Chee Ik-seung. 2011. "The Association of Problem Solving Style,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Body Image Satisfaction in a Young Healthy Korean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7(2): 221-228.
- Chong Young-joo and Chong Young-sook. 2007.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 67-88.
- Choung Wan. 2010.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Legal Measurements of Internet Suicide Website." *Kyung Hee Journal* 45(3): 273-298.
- Chung Ick-joong, Park Jae-yeon, and Kim Eun-young. 2010. "Factors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of School Youth and Out-of-School Youth." *Mental Health & Social Work* 34: 222-251.
- Chung Yong-min. 2011. "The Effect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bjected Body Consciousness, and Social Physique Anxiety on Physical A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3(2): 959-971.
- Hong Na-mi. 1998.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 University.
- Hwangbo Soo-yeon. 2012.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from an Eco-system Perspective." Master's Thesis, Daegu: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 Hyun An-na and Yoon Suk-ja.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ollege freshmen: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2): 403-428.
- Jang Chang-min and Choi Ji-young. 2011. "Characteristics of Suicid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 Analysis of News Repor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5): 73-82.
- Jegal Da-na and Park Jae-yeon. 2017. "Risk Factors and Protection Factors

- Affecting for Family Aspect the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413-444.
- Jo Eun-Kyoung and Lee Young-soon.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on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zed Self-System and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8(3): 493-509.
- Jo Ho-woon, Ju Eun-jeong, and Kim, Jeong-il. 2016. "The Pathways from the Parental over-involvement to College Students' Suicide Thought - The Mediating Effects of College Students'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4(1): 77-86.
- Jo Kae-hwa and Lee Hyun-ji. 2013. "A Content Analysi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Cause and Intervention of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2: 105-133.
- Kang Suk-hwa. 201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PhD dissertation, Cheongju: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 Kim Chang-hag. 2011. "The Influence of Media Representation of Suicide on Adolescent Perception of Impulse Suicide." Master's Thesis, Kyonggi: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 Kim Dong-suk. 2010. "An Eco-Systemic Study of the Suicide Idea of High School Students - Centered on Gong-ju City." Master's thesis, Gong Ju: Kong 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Han-na, Kim Hae-ryun, and Choi Yun-shin. 2011. "Parental Abuse, Parental Alcoholism,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5): 117-129.
- Kim Hye-ji and Bae Sung-woo. 2017. "Analyses of the suicidal path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9: 1-23.
- Kim Jae-yop, Chung Yun-kyung, and Lee Jeon-suk. 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ive relationship in the contribution of adolescents of domestic child abuse to suicidal ideation." *Social Science Review* 21: 119-144.
- Kim Jong-un and Ji Yeon-ok.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Flexibility between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 Instruction* 17(3): 523-545.
- Kim Jung-jin. 2009.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 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2: 413-436.
- Kim Min-kyeong. 2011. "Relationship on Family Abuse Experience, Depression, Resilience and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3): 109-127.
- Kim Sung-hyun, Kim Mi-kyung, and Back Hyun-ok. 2017. "The Effects of the Self-esteem and Frustration on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46: 1-18.
- Kim Yeji and Chang Hyejung. 2016. "Effects of physical health conditions on suicidal ideation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3(2): 27-37.
- Lee Hye-sun, Kim Sung-yeon, Park Il, Kang Yeo-jung, Lee Ji-young, and Kwon Jung-hye. 2012. "The reasons of suicide-related ideation and behavior and the reasons for not choosing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3): 703-728.
- Lee Keun-young, Choi Soo-chan, and Kong Jeong-seok. 2011.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83-107.
- Lee Ki-beom, Ju Hae-won, and Hyun Myoung-ho. 2015. "The Moderating Effects of 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3(2): 21-36.
- Lee Min-ah, Kim Seok-ho, Park Jae-hyun, and Sim Eun-jung. 2010.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ocial Relationships and Famil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2): 61-84.
- Lee Su-hyun and Lee Kang-yi. 2015. "Effects of poor academic achievement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stress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9): 183-211.
- Mo Jee-hwan and Bae Jin-hee. 2011.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 Focused on Comparison Gender and Age Differ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2): 121-145.
- Park A-cheong. 2003.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3): 373-392.

- Park Dong-kyun and Sin Seong-won. 2007. "The Case Study of Depression and Modeled Suicide in Korea and it's Social Countermeasures."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6(3): 92-124.
- Park Kwang B and Shin Min-sup. 1991. "Perceived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298-314.
- Park Pil-na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Type and Self-esteem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9(1): 1-10.
- Park Young-hee. 2017. "Influences of Experience in Suicide Risk Factors, Mental Health,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in College Freshme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2): 621-632.
- Roh Myoung-sun, Jeon Hong-jin, Lee Hae-woo, Lee Hyo-jung, Han Sung-koo, and Hahn Bong-jin. 2007. "Suicide-Related Behaviors among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6(1): 35-40.
- Seo Hye-seok. 2006.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PhD dissertation, Kyungbuk: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 Sim Young-suk. 2000. "The Effects of Problem-Severity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of the University Student on Likelihood of Seeking Counseling." Maste'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Sin Young-hHun and Park Sun-young. 2016. "Effects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on Suicidal Ideation: Examination of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Welfare* 18(1): 235-259.
- Son In-bong and Choi Chung-ah. 2016. "The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University Environment on Suicidal Thoughts among University Stud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24(4): 553-571.
- Yang Hyun-joo and Byun Eun-kyung.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icidal attitude and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from the media reports on suicid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582-590.